

“고교 무상교육 정부 차원 지원 절실”

광주·전남도교육청 “재정부담 지방에 떠넘기는 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0.46→21.33%로 인상해야”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정부 차원의 지원 미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확히 광주시 교육감은 11일 확대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기존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현행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33%로 올려서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특별기금을 만들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교부금을 늘려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은 선례를 들었다.

고교 신입생 수업료 97억원과 학

교운영지원비 36억원, 교과서 대금 17억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45억원(1인당 연간 30만원), 다자녀가정 학생교복비 33억원, 에듀택시 17억원 등 245억원 상당의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전남교육청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고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공동성명과 궤를 같이한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이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2020년 고, 3학년,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해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

자로 한다.

올해 2학기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에서는 고3 1만7948명, 전남에서는 1만8885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전체 지원금(잡정)은 광주가 154억원, 전남이 140억원으로 광주와 전남 통틀어 3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하반기만 고려한 것으로, 연간 수혜액으로 환산하면 광주·전남 합쳐 588억원에 이른다.

고3 학생 1인당 광주는 연간 171만원, 전남은 148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업료는 광주가 134만8800원, 전남은 시 단위 115만2000원, 군 단위 87만7205원을 내고 있고,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광주 28만4400원, 전남 23만1000원, 평균 교과서비는 광주가 8만4000원, 전남이 10만원 수준이다.

2017년말 교육부가 학부모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여론조사에서 86.6%, 10명 중 9명 꼴로 찬성한 점도 정책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영아 인지능력 향상 놀이학습 프로그램

광주 동구가 드림스타트 영아 2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영아 교재교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아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전문적인 교재·교구를 통해 대상아동의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언어·인지발달 향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동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동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아교재·교구 활용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상 부모들에게 교재·교구를 이용한 효율적 학습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영아학습 진행상황 점검, 올바른 유아법 부모교육 등을 설명하고 가정에서도 학습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구,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운영

광주 서구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을 위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한다.

11월까지 상무시민공원 등 관내 5개소에서 운영하며, 지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소에 따른 운영요일은 상무시민공원이 매주 월,수,금, 5.18 기념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벼들근린공원, 동천동 광주천변은 매주 화,목,일 로 주 3회,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남구, 신재생 에너지 공모사업 참여 기업 모집

광주 남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모델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민간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2020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공모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과 공공, 상업건물 등 특정 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융복합 시설을 설치,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해당 건물의 온수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629억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상 사업비의 50% 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북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 지원

광주 북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북구는 “오는 14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함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협약식을 개최한다.”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북구 7000만원, 광주은행이 3000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을 보증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하며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연 2%의 이차차액을 보전한다.

특례보증 지원 신청자격은 북구 소재 사업장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 중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광산구보건소, 해빙기 조기방역 실시

광주 광산구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감염병 국외 유입 차단과 집단발생 위험 저감 등을 위해 이달부터 해빙기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대회 전까지 방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광산구는 먼저, 신수촌·마더어촌·남부대경리장 등 수영대회 관련시설 주변을 집중 방역하기로 했다.

이울러 숙박업소·식당·철도역사·공연장 등 의무소독대상 시설 985개소에 안내문을 보내 8월까지 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산구보건소는 지난날 방역소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 방역소독업체를 선정하고,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임형택 기자

전남농협, 여수서 사랑의 돼지고기·계란·쌀 나눔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1일 여수시청에서 ‘사랑의 돼지고기·계란·쌀 나눔행사’를 가졌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여수시는 11일 여수시청에서 ‘사랑의 돼지고기·계란·쌀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박종탁 농협여수시지부장, 박계수 여수축산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돼지고기 100kg, 계란 4500개, 쌀 500kg을 여수 다습 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국농어인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구제역과 수급불안

서은홍 기자

“산업재해 50세 이상 준고령자 대책 마련 촉구”

김기태 전남도의원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50세 이상의 준고령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태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도 고령자와 50세 이상 준고령자가 수가 2010년 경제활동 동인구 770여만 명에서 2017년 1,060여만 명으로 크게 늘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2010년 571명에서 2017년 681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64명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경우, 위험 상황에

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산재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안전 사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술상 지점과 작업환경 표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 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고령근로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전남등부추재본부장

본 사 사 령



▲ 송 호 빈
편집국 지역사회부
(장흥지역담당)기자

<2019년 3월 12일자>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년 단 20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 병 옥(650116-1639321)
최 후 주 소 :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181, 1001동 1405호
(금당그리안아파트)
등록기준지 : 전남 고흥군 과역면 하분길 8-6

위 망 김병옥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3월 12일

공 고 인 : 김정아, 김화령, 김성령.
주 소 :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181, 1001동 1405호
(금당그리안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3월 4일
공고기간 : 2019. 3. 12~ 2019. 5. 13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 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 업 진 단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 e l : 062)512-0336 H · 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